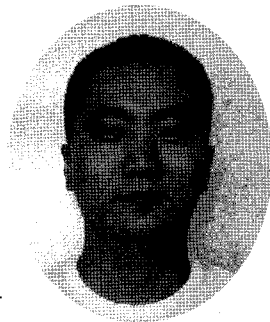




현장 실습 통해 '포장 산업' 중요성 느껴

남 민 우 /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과 2년



처음 교수님께서 한국포장협회로 실습을 나가라고 하셨을 때 사실 걱정이 됐다.

뭐랄까? 내 생각에는 왠지 협회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보다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이 이곳 협회에 계신 전무님, 부장님,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좋다, 그렇지 않더라는 인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실습 첫날 사무실에는 부장님이 먼저 나와 계셨다.

부장님의 첫 인상은 말이 별루 없으신분 같았고, 특히 사무실에는 여직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우 조용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포장이라는 분야에 종사하고 또 포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공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처음과는 달리 어색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곳에서의 실습은 주로 현장을 다니는 것으로 하루,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기자들과 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난 이곳으로 실습을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한곳이 아닌 여러 곳을 방문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내가 이곳 포장업체 쪽에서 일을 한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협회 직원들과 동행을 하여 업체를 방문 했을때 “아! 내가 학교에서 배운게 전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라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업체 방문시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직급이 있으시는 분들이었고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또 그 분들이 지금 저 자리에 계시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 하시는 말씀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실무에 오게 되면 3년~5년은 일을 해야 이쪽에 대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부장님과 동행하여 방문한 곳은 주로 현장을 위주로 다녔고, 부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셨다. 포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을 시작 해야 하는 나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도움이 될만한 얘기까지도 해주셨다. 업체 현장에서 땀 흘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근로자 분들이 나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요즘 사회에는 너무 편한것만 찾는 20대들이 많다. 물론 나 역시 힘든것 보다는 편한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분들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이 사실은 조금은 부끄러웠다.

저 분들이 안계셨다면 과연 저 많은 일들은 누가 했을까?

요즘 다들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던데 안되는게 아니라 편한것만 찾는 생각이 잘못이 아닐까?

나는 실습을 나와서야 포장업체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이든지 포장이라는 기능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을뿐 아니라 그동안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느낄수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포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몇몇 있지만 활성화라고는 보기

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포장은 우리가 살아 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므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

내 바람이 있다면 지금 보다는 포장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학교가 많아졌으면 한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3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3주라는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회의 시작을 하는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내가 어떠한 일을 할때 아마도 3주의 나의 실습생활이 나에게 큰 다 시금 "아!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라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와 지금의 이런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있었다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고층 건물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들과, 차들이 어디론가 바쁘게 간다. 진짜 앞만 보고 가도 쉽지 않은게 사회 생활인것 같다.

이제 나도 저들 틈에 같이 경쟁하고,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루빨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을 한다고들 말한다. 내가 어떤 업체에서 근무를 하던지 모든걸 처음 접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아니면 안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던 나에게 3주동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협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